

2008년 8월 14일 목 말씀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하늘 사상이 딱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할 때도 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신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10대 때부터 사상 일으키기 위해 몸부림 쳐서 50년이 갈 때까지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10대부터 사상 넣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씨 뿌리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할 때는 행사만 준비하지 말고 일단은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잔치 때에 사람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때 해외 회원들 잘 해주고, 해외 회원들은 축구만 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서 사귀고 친해지기 바랍니다. 이제는 문화 회원들도 많이 우리에게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행사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많이 알 것입니다.

후원을 받을 때는 오래 전부터 받아야 됩니다. 후원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후원하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한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명예도 주고 같이 참여도 시키면서 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책자에서 ‘흙’자를 많이 보았지만 ‘흙’ 자 글씨체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한 번에 쓴 것인데 프랑스에서 전시되어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 작품도 잘 활용해서 자꾸 만들어 쓰도록 하십시오.

어린 회원들은 맨날 쫓아다녀야 되는데 큰 사람들은 방향만 탁탁 잡아주고 큰 것만 해주면 됩니다. 말씀을 항상 중심해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원들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애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 애들은 전체에서 여론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이것,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하면 됩니다.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모아놓으면 양이 직접 목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서 지내야 하냐고. 그러면 자유롭게 드러눕고 싶은 양은 그렇게 하고, 풀 뜯어 먹고 싶은 양은 그렇게 하고, 잠자고 싶은 양은 잠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사람들의 면담이 대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묻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의식 안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쉽습니다. 지도자는 전체를 훑으면서 봐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빨리 안 움직입니다. 빨리 움직이고 지도자가 뛰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뛰면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뛰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빨리 안 움직이면 민족이고 어떤 단체고 교회이고 간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뛰면 그냥 같이 뛸니다. 지도자는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 돌아가는 대로 전체가 돌아갑니다. 지도자가 앞에서 천천히 돌면 따르는 사람도 천천히 돌고 지도자가 걸어가면 앞에서 많이 안 따라옵니다. 가봤자 조금만 갑니다. 지도자가 뛰면 따르는 사람이 같이 힘들어서 그렇지 많이 뛰게 됩니다. 뒷사람은 뒷사람대로 인도하면 됩니다. 지도자가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지도자는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

의 심리를 연구하고 한계도 연구하고 해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의 코치도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조정해서 해 나가야 뜻이 그런 걸 코치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코치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보면 압니다. 일을 해보면서 어떻게 됐나 적어놨다가 그때그때 딱딱 노련하게 적어놓고 다음에 참고하고 그게 바로 연구입니다. 어디 가서 뭐 물리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속 연구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력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물어보고 걸으로만 보면 다 멸절한데 속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여주고 옷 없으면 옷 사주고 교단에서 다 그런 선교 비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담하면 다 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전에 이끌고 갈 때 애들이 어떤 것 때문에 애로가 있었다면 지도자는 그것을 채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자고 하면서 각 분야별로 다 일을 줘서 일도 바꿔놓게 하고, 맨날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쉬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쉬어라, 두 달 동안 쉬어라’ 그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중국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 전에 중국이 인기가 있을 때는 막 몰렸는데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이 고기 길러 놓고 투망을 넣고서 확 잡아먹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한때 중국어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배우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어디서나 나는 하늘의 운전을 합니다. 꼭 운전석에 앉아서만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멀리에 있어도 원격조정하면 이리로 가게하고, 저리로 가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나가도 사람들 안 만납니다. 항상 만나면 세상으로 흐트러질까봐 항상 팬텀기 조정하듯이 조정하면서 갑니다.